

# 스마트글래스 출하량 급증... 전자업계, 신제품 경쟁 본격화

삼성 구글 등 글로벌 협업 활발  
메타 '메타 레이벤' 시장 선점  
애플 아이폰 연동 제품 개발 중



사용자가 MWC에서 삼성전자의 AI 스마트 안경인 갤럭시 글래스를 경험해보고 있다.

스마트폰 뒤를 이을 차세대 핵심 인공 지능(AI) 기기로 스마트 안경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안경 시장 확대가 예상되면서 미국 메타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스마트안경을 앞세워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9월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스마트글래스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97% 급증해 처음으로 1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시장 규모도 2040년 2000억 달러(약 29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스마트 안경이 차세대 핵심 AI 기기로 떠오르는 이유는 안경 렌즈를 통해 사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간편함 때문이다. 통화는 물론 통역도 가능해진다.

스마트 안경 시장에는 페이스북·인스

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먼저 선점했다. 메타가 개발한 '메타 레이벤' 시리즈는 전체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700만개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메타 레이벤 사용자는 "안경 디스플레이에 실시간 번역문이 나타나며, 상대방과 소통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이 확대되자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 등 글로벌 전자 기업들도 연이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갤럭시글래스(가칭)'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갤럭시 글래스는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카메라로 이르면 연내 출시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스마트 안경 시장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점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앞서 확장현실(XR) 헤드셋 '갤럭시 XR'을 출시한 경험이 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미국의 안경 브랜드 위비파커와 협업해 스마트글래스를 개발 중이다.

김정현 삼성전자 MX사업부 부사장은 지난 6일 MWC에서 진행된 미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폼팩터를 검토한 결과 안경은 가장 강력한 후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경이라는 하드웨어 자체가 아니라 AI를 위한 최고의 입력 장치가 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이 안경이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고 있다"며 "하드웨어는 유지되되 지능은 클라우드와 연결된 스마트폰에

서 빌려오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갤럭시 글래스의 청사진을 공개하고, AI 웨어러블 시장을 본격 선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연동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마트 안경은 물론 카메라를 탑재한 에어팟을 아이폰과 연결해 사용자 맞춤 환경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애플은 내부 코드명 'N50'으로 알려진 스마트 안경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50은 디스플레이 없이 아이폰과 연동되는 스마트 안경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해상도 카메라와 환경 인식용 센서를 탑재했다. 해당 제품은 외부 안경 브랜드와 협업하지 않고 자체 프레임 설계를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N50은 올해 12월 양산을 시작해 이르면 올해 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현대차·기아, 자율주행 실증도시 누빈다

'K-자율주행 협력모델' 선정  
셔클 플랫폼 기반 서비스 예정

현대자동차·기아의 자율주행 차량이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누비며 데이터 축적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의 자동차 제작사와 운송 플랫폼사로 각각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국내 최초로 도시 단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 실증을 기반으로 양질의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의 표준 수립과 제도 정비가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실증사업에서 ▲자율주행 개발전용 차량 제작 부문 ▲운송 플랫폼 부문을 담당할 사업자로 각각 선정되며 맞춤형 자율주행 차량 제조 역량과 AI 기반 SW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차량 제작을 위해서는 차량의 공급은 물론, 자율주행 기술 방식에 따른 센서 추가 장착, 차량 제어 연동, 무선 업데이트(OTA)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검증을 위한 다양한 기능 구현이 필요하다.

현대차·기아는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과 웨이모 로보택시에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을 파운드리 방식으로 제공하며 자율주행 기술별 전용 차량 제작 역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사의 기술 구현을 위한 자율주행 개발전용

차량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량 및 운영 데이터를 개발사들과 공유해 기술 고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현대차·기아는 도시의 다양한 교통 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는 '셔클(Shucle)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 특화 호출·배차 플랫폼을 이번 실증 사업에 투입한다.

현대차·기아 모빌리티사업실 김수영 상무는 "이번 실증사업은 현대차·기아가 보유한 자율주행 통합 역량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차량과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성과가 확산 가능한 표준으로 이어지도록 기술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로템, 미래 첨단무기 R&D 전략 공개

협력사 '상생성과 공유제' 도입  
부품 국산화 등 금융지원 확대

현대로템은 지난 6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공장에서 '2026 현대로템 디펜스 상생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협력사의 부품 국산화와 미래 첨단무기 연구개발(R&D) 지원 전략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올해부터 협력사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해외 사업 신규 수주 과정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성과를 협력사와 나누는 '상생성과 공유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부품 국산화 개발 성공 후 최초 계약이 체결될 당해와 이듬해에 국산화에 따른 비용 절감분의 100%와 50%를 각각 협력사에 환원하는 구조다. 해당 국산화 부품이나 기술이 장기간 거래로 이어질 경우 협력사의 수주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협력사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동반성장펀드'도 확대한다. 기존 70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린 150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협력사 요청 시 금융기관 예탁 재원을 활용해 투자 자금과 운영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6일 협력사, 신한은행과 3차 간 '현대로템 협력업체 상생성장 및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동반성장펀드의 효율적 운용과 함께 협력사 대상 무역금융 지원, 보증, 대출 우대금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협력사의 미래 첨단무기 개발과 부품 국산화, 성능 개선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현대로템은 내년까지 2년간 총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에는 차세대 유·무인 지상무기 플랫폼, 항공우주, 인공지능(AI), 무인화 관련 핵심 부품 국산화와 성능 개선 등이 포함된다.

기술 지원과 교육 사업도 병행한다. 협력사와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기술 협력 교류를 추진하고 협력사가 직접 과제를 제안하거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정부 과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술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삼성메디슨 초음파 치료 시장 진출

히스토소닉스 전략적 협력 추진

삼성메디슨이 초음파 기술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삼성메디슨은 비침습 초음파 기반 암 치료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히스토소닉스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며, 진단을 넘어 치료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본격 확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삼성메디슨의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R20'과 에디슨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 구현이다.

양사는 정밀 진단 영상 기술과 첨단 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의료 솔루션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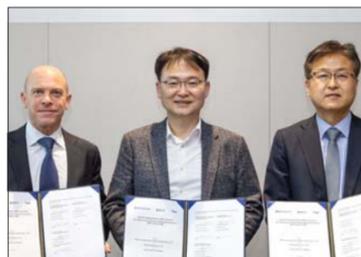
## HD현대, 원자력 기반 전기추진선 개발 추진

미국선급협회 공동개발 협약 체결

HD현대는 최근 미국선급협회(ABS)와 '원자력 연계 전기추진 시스템 개념설계를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원자력 연계 전기추진 시스템 기본 설계 ▲전장품 사양 선정 ▲전력기기 배치 설계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최대 100MW급 출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특성을 전기추진 시스템에 접목해 새로운 선박 동력원으로서 SMR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HD현대 이번 개발 과정에서 장시



HD현대가 미국 선급협회(ABS)와 '원자력 연계 전기추진시스템 개념설계를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

간 항해와 고속운항이 요구되는 대형 컨테이너선에 맞춘 전력 운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쌍축(Twin Screw) 프로펠러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추진력과 동행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 삼성그룹, 공채 실시... DS부문 인재 확보

전자·물산 등 18개사 신입사원 채용

삼성그룹이 오는 10일부터 상반기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삼성은 국내 주요 그룹 가운데 대규모 공채 제도를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채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8개사가

각각 공고를 내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입사를 원하는 지원자는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 커리어스'를 통해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낼 수 있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채용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를 상대로 HBM4(6세대)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 분석이다.

/구남영 기자